영화 '여배우는 오늘도' 각본·연출·주연 문소리

"자전적 이야기 아니지만 100% 진심"

문소리의, 문소리에 의한 영화
배우의 평범한 일상 유쾌하게 그려
"평범함이 가장 큰 개성이고 매력
영화계 든든한 밑거름 되고 싶어"

배우 문소리(43)와의 만남은 시종일관 유쾌했다.

5일 서울 삼청동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문소리는 이내 긴장을 풀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듯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늘어놨다.

문소리는 본인이 직접 각본을 쓰고 주연과 연출을 맡은 영화 '여배우는 오늘도'의 개봉(14일)을 앞두고 있다.

2013년 입학한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연출제작과에서 만든 단편 '여배우'(2014), '여배우는 오늘도'(2015), '최고의 감독'(2015)을 묶어 장편으로 완성한 작품이다.

한때는 잘나갔지만, 지금은 일감이 뚝 끊긴 데뷔 18년차 여배우 문소리의 일상을 그린다. 날마다 일과 스트레스로 술에 절어 살고, 은행 대출을 받거나 몰래 병원광고 사진을 찍기도 한다. 스크린을 벗어나면 엄마, 아내, 며느리 등 평범한 생활인으로 돌아간다. 그 모습이 때로 찌질하면서도, 유쾌하고 유머러스하게 그려진다.

"저는 인생에서 유머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함께 웃으려면 여러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더라고요. 이 영화는 '내가 너를 이해하고, 나도 너를 이해해'라는 느낌에서 출발한 웃음이어야 했죠. 웃자고 한 소리인데, 남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시사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웃었는데, 제 또래의 많은 여성이 똑같이 느끼는 고민이 담겨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문소리는 100% 지어낸 얘기라고 했지만, 능숙한 연기 덕분인지 자전적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그의 실제 삶은 어떨까.

"저는 일하지 않는 순간에는 평범함을 지향하려고 해요. 실제로 26살 때까지 평범하게 살아왔고, 또 평범하게 생긴 편이었죠. 제가 데뷔했을 때 평범함이 저의 큰 개성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창동 감독님이 계속 '평범함은 좋은 것이고, 다른 배우의 삶을 좇기보다 저의 삶을 살면 된다'고 저에게 끊임없이 세뇌를 시켰죠. 하하."

제목 '여배우는 오늘도'에는 주어는 있지만, 동사는 빠져있다.

"여배우는 오늘도 '연기해요', '사랑받고 있어요', '홍보해요' 등 몇 개의 동사만 넣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동사 자리에는 때로는 양립할 수 없는 동사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오는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아요."

문소리는 고교 시절 연극 '에쿠우스'를 보고 처음 배우의 꿈을 품었고, 성균관대 연극반에서 그 꿈을 키웠다. 그러다 영화 '박하사탕' 오디션에 덜컥 합격하면서 영화배우의 길을 시작했다.

데뷔작 '박하사탕'(1999)부터 그에게 베니스영화제 신인 여우주연상을 안긴 '오아시스'(2002) 등 그의 필모그래피는 영화와 드라마, 연극 등으로 빼곡히 차있다.

앞으로 감독으로서 필모그래피를 더 채울지도 궁금했다.

"지금은 연기도 해야 하고, 대학에서 학생도 가르쳐야 하고, 일곱 살짜리 딸아이까지 키워야 합니다. 연출 욕심을 부린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물론, 앞으로 살면서 다른 틈이 생기고 그 사이로 재미있는 이야기가 빛나게 솟아오르면, 소화를 시켜볼까 모르겠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또 영화를 막상 찍어보니까 감독이라는 직업이 우주에서 제일 불쌍한 것 같더라고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녀에게 남편 장준환 감독은 든든한 지원군이다. 현재 영화 '1987'을 연출 중인 장 감독은 아내의 작품에 남편 역으로 깜짝 등장했다.

"평소 말할 때 저는 대담한 편이지만, 남편은 세심하고, 여려 보이는 면이 있어요. 하지만 영화적 세계는 정 반대죠. 남편은 굉장히 모험심이 강하고 대범하고 탐험가 기질이 있어요. 스케일이 매우 크죠. 시나리오의 한 장면을 써도 제작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씁니다."

시종일관 유쾌한 모습인 문소리는 배우로서 포부를 이야기할 때는 한층 진지했다.

"제가 예전에 한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는데, 사회자가 여우주연상을 꽃에 비유하더라고요. 그 코멘트에 발끈해 '저는 앞으로 영화의 꽃보다 뿌리와 거름이 되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말했죠. 신인 시절 철없던 때의 이야기지만, 사실 그 마음가짐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영화 일을 오래 해서 영화계에 든든한 존재이자,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싶습니다."

/연합뉴스

탁재훈·신정환 "부르면 갑니다"

엠넷 '프로젝트S : 악마의 재능기부' 14일 첫방
생일파티·회식 등 시청자가 부르면 어디든 출동

방송인 신정환이 원정 도박으로 물의를 빚은 후 7년 만에 복귀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다음 주 첫 방송 한다.

엠넷은 5일 "신정환이 출연하는 신규 리얼리티 프로그램 '프로젝트S : 악마의 재능기부'가 오는 14일 밤 11시 첫 방송 한다"며 "19년 전 그룹 '컨츄리 꼬꼬'에서 신정환과 함께한 탁재훈도 같이 출연한다"고 밝혔다.

과거 큰 인기를 누렸던 두 사람은 과거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 화곡동 옥탑방에 '콜센터'를 차리고 생일파티부터 직장회식까지 시청자가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갈 것을 약속했다.

연출을 맡은 조욱형 PD는 "과거 예능계를 주름잡았던 두 남자의 재능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발휘될지, 몇 년 만에 만난 이들의 호흡은 어떨지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본 방송에 앞서 티저 영상도 이날 공개됐다. 모든 상황에 낯설어하는 신정환과 이를 본 탁재훈의 당황스러운 표정이 웃음을 자아낸다. /연합뉴스

영화 '돌아온다' 몬트리올영화제 금상 수상

김유석·손수현 주연의 영화 '돌아온다'가 4일(현지시간) 폐막한 제41회 몬트리올국제영화제의 '첫 영화 경쟁' 부문에서 금상을 받았다.

동명 희곡을 원작으로 한 '돌아온다'는 막걸리 가게 단골들 앞에 낯선 여인 주영이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

'영화판'(2011), '미라클 여행기'(2014)를 연출한 허철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배우 김유석과 손수현이 주연했다.

몬트리올국제영화제는 캐나다 퀘벡 주의 몬트리올 시에서 열리는 40여 년 전통의 영화제다. '돌아온다'는 전 세계 극영화 데뷔작 가운데 주목할 만한 작품을 엄선한 '첫 영화 경쟁(1st Film Competition)' 부문에서 상영됐으며 이 부문 최고상인 금상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올 하반기 개봉한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그레이트 지리산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행복한 지도(재)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민의당 4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속보이는TV 인사이드	50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00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의당 45 SBS 생활경제
11	40 코리언 지오그래픽 플러스(재)	50 맨홀-이상한 나라의 필(재)	00 2017 메이저리그 류현진 선발경기 〈LA다저스 : 애리조나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50 삼척 월드비치 치어리딩 마스터즈			55 닥터 365
2		00 생활의 발견 5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25 프리파라 2 25 별별며느리	00 전라남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도정질의
3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스페셜 3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MBC 파워매거진	00 SBS 스페셜
5	00 KBS 뉴스 10 남도스페셜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롤러코스터보이 노리 2 15 스톤에이지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MBC 이브닝 뉴스 35 병원선(재)	00 SBS 오뉴스 5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이름 없는 여자(재)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10 다시 만난 세계 (재) 45 날씨와 생활 50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 7 35 공감다큐, 사람	50 이름 없는 여자	20 병원선(재)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4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55 하하랜드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40 시사토론 '10'			
10	35 숨터 40 UHD 특집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00 맨홀 – 이상한 나라의 필	00 병원선	00 다시 만난 세계
11	30 KBS 뉴스라인 50 특선 UHD 다큐멘터리 황금기사의 성	10 102017 드라마 스페셜 〈우리가 계절이라면〉	10 라디오스타 1~2부	10 싱글 와이프 1~2부
12	45 인간극장 스페셜(재)	15 세상의 모든 다큐	40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오상진의 베트남 피싱로드 -3부 무이네 사람들〉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07:30 뚝딱맨(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딩동댕 유치원 1~2
08:30 공룡탐험대 고고다이노(재)
08:45 한글이 야호2
09:00 레이디버그
09:30 몰랑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재)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콩나물 오징어찜과 오이선샐러드〉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초대석(재)
13:40 미래강연 Q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5:00 마샤와 곰
15:30 호기심 나라 오키도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쥬
16:30 한글이 야호2(재)
16:45 딩동댕 유치원 1~2(재)
17: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7:30 뚝딱맨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몬카트(재)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19:30 EBS 뉴스
19:50 장수의 비밀(재)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알면 알수록 궁금한 미얀마 3부 신비의 부족 바다집시를 찾아서〉
21:30 한국기행 〈그곳에서 한 달만 3부 감성 제주 봉봉〉
21:50 EBS 다큐프라임 〈빛을 삼킨 뱀〉
22:45 극한직업 〈독충을 찾는 사람들〉
23:35 장수의 비밀 〈잔소리 할매와 잠보 할배의 티격태격 로맨스〉
24:25 지식채널e
24:30 미래강연 Q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6일(음 7월 16일 丙申)

子 48년생 예전에 전혀 접하지 못 했던 새로운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60년생 절실히 필요한 때에 해결해 주는 이가 있으리라. 72년생 아무리 마음이 조급하더라도 잠자코 기다리고 있어야 할 때다. 84년생 거시적 관점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45, 70

丑 49년생 뜻밖의 일로 인해서 하루 종일 매달릴 수다. 61년생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의하라. 73년생 목적이 분명해야만 명쾌한 결과를 도모할 수 있다. 85년생 어떠한 유혹이 있다하더라도 들은 후, 참고만 하는 것이 현명하다. 행운의 숫자 : 65, 52

寅 50년생 오해를 풀고 나면 불편이 해소되리라. 62년생 다채로운 변화의 시도와 응용이 이롭다. 74년생 마음이 있더라도 말로 표현해야 효과를 본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 86년생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이가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89, 36

卯 51년생 강도와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형세이다. 63년생 장소의 선정도 잘 해야 하느니라. 75년생 불가피하다면 적극적으로 즐기는 편이 훨씬 낫다. 87년생 진행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 일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48, 63

辰 52년생 분명한 책임 의식이 절실한 때이다. 64년생 체면치레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느니라. 76년생 기본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더딜 수밖에 없다. 88년생 사소한 부주의가 구설과 시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60, 06

巳 53년생 악담 끝은 없어도 덕담 끝은 있느니라. 65년생 아예 의식하지 못한 부분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라. 77년생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인식하면 된다. 89년생 착실하게 진행한다면 알찬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8, 42

午 42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위상을 갖추게 될 것이다. 54년생 구우일모의 기회이다. 66년생 특별히 챙기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78년생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지내야 편하다. 90년생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니라. 행운의 숫자 : 50, 84

未 43년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안전장치 시급. 55년생 성벽 같이 굳어지는 양태이다. 67년생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 79년생 합의하에 선택하면 틀림없다. 91년생 솥에 넣은 팥이라도 익혀야 먹는 법이니라. 행운의 숫자 : 72, 53

申 44년생 다른 생각일랑 접어 버리고 본연의 생활에 충실 하는 것이 이익이다. 56년생 취약점을 보완한다면 때 놓은 당상이로다. 68년생 결실에 민감하기보다는 과정에 충실 하라. 80년생 생산적인 영역으로 진입하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40, 58

酉 45년생 항상 그러려니 하는 안일할 생각 속에서 방치하다가 걷잡을 수 없이 큰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라. 57년생 절제로 인한 부가적 효과가 상당하다. 69년생 망각하고 있지 않나 살펴볼 일이다. 81년생 수월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2, 92

戌 46년생 전보다 훨씬 좋은 여건으로 전환될 수도 있으니 기대하고 있어도 된다. 58년생 천편일률적이므로 전혀 변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70년생 사소한 원인도 차치하지 말라. 82년생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68, 66

亥 47년생 특별히 유념해야 뒤탈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59년생 급작스러운 단절이나 변화가 보인다. 71년생 주의한다면 손실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83년생 겉과 속은 전혀 다르니 표면의 현상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곤란하다. 행운의 숫자 : 73, 9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